

공격력 올린 바이든...가자지구·나이 이슈 정면 돌파

나이 논란에 "중요한 것은 생각...트럼프는 부인 이름도 기억 못해" 역공 미시간 경선 앞두고 가자 휴전·우크라 지원안 처리 등 표심 잡기 나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메시지 전략에 변화를 꾀하며 공세적 태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자신의 재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고령 논란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로 역이용하는가 하면, 주요 지지층의 민심 이반 요인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방영된 NBC 방송의 '라이트 나이트' 쇼에 출연, 미국 유권

자들이 우려하는 자신의 나이 문제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놀림거리 소재'로 활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보다 4살 적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대략 나만큼 늙었지만, 자기 부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단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 연설에서 부인 멜라니아를 '머세이디스'라고 불렀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제기되자 즉각 이를 고리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늙었느냐"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 기

조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례적인 언급이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말순이 넘은 노인'이 4년 더 대통령직을 맡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미국인들의 우려를 가라앉히는 데 애를 먹으며 자신을 둘러싼 고령 논란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공세 전환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판을 흔들어보려는 차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메시지 전략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온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발목 잡는 또 다른 요인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정면 돌파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뉴욕의 '반 루엔'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휴전 시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말까지도 기대하고

있다"며 휴전 개시 시점을 '다음 주 월요일'로 예상했다.

이어 '라이트 나이트' 쇼에서는 휴전 합의가 도출되면 이스라엘은 라마단 기간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기로 했다고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민주당의 27일 미시간주 경선을 코앞에 앞두고 나왔다는데 주목한다.

6대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는 아랍·이슬람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아랍·이슬람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가자지구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반기를 돌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를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 협상이 곧 타결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직접 알리고 나선 것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협상의 최종 타결까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최대한 자제하는 통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가 가자 주민들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지지층 일각의 불만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트럼프 인사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의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섣달(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예산안 처리를 설득하는 데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오는 29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란히 텍사스주의 남부 국경도시 브라운즈빌을 방문해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불법 이민 문제를 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폴란드 외무장관과 회담하는 미 블링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첫번째)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오른쪽 첫번째)과 회담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포스트 기사다' 여론 1위 후보 이시바, '의원 공부 모임' 재개

8개월만에 정책연구 모임 열어 "차기 당총재 선거 겨냥 포석"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차기 일본 총리 후보군의 동향이 주목받는 가운데,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의원 공부 모임을 약 8개월 만에 재개했다.

28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지(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날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연구 모임을 열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주도하는 이 모임은 작년 6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재개됐다.

그는 이번 모임의 주제를 '국민보호'로 정하고 직접 강사 역할도 했다.

닛케이는 "자민당 내 파벌 해산으로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공부 모임 같은 그룹이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차기 당총재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기사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오는 9월에 끝난다.

최근 주요 일본 언론의 여론 조사에서 기사다 총리 내각 지지율이 2012년 자민당 재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시바 전 간사장은 차기 후보감 1위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17~18일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군 중 그는 25%의 응답률을 얻었고 같은 달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21%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마이니치 조사에서 응답률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차기 총리 적합 후보군에서 순위가 크게 상승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총재 출마 의향을 질문받자 "외무상 직무에 일의전심(一意專心)으로, 한눈팔지 않고 임한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가미카와 외무상이 갑자기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도를 올리고 있다"며 "여성 외무상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져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니 MUI, 국회에 "기후법 제정" 지침 전해

〈올레마협의회〉

이슬람 율법 해석 '파트와' 의결 법적 구속력 없지만 무슬림 큰 영향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올레마협의회(MUI)가 자국 국회를 상대로 기후 위기에 방 법률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전했다.

2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MUI는 지난해 "입법부는 기후 정의의 원칙과 가치를 통합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파트와(Fatwa)를 의결했다며 최근 이를 공개했다.

파트와는 이슬람 율법을 해석해 각종 생활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무슬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MUI는 또 지방 정부에는 각종 투자 제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와 인허가 평가 시 환경 보호와 기후에 미칠 영향 등을 우선하고, 각 관할 구역 내 모든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인식 캠페인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MUI의 환경·천연자원부 책임자인 하유 프라보워는 전면적인 기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율법 해석을 마련했다며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MUI가 특히 우려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면 정부와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UI가 기후법 발의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자카르타 포스트는 전 세계 무슬림들로 구성된 기후

단체 '움마 포 어스'(Ummah for Earth·지구를 위한 이슬람공동체)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환경 단체들이 MUI를 상대로 1년여간 로비를 벌인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칼리사 칼리 코디네이터는 통계로 볼 때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취약한 상태라며 "기후 변화 문제에 전 세계 무슬림 지도자들이 참여해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UI는 과거에도 삼림 벌채를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뜻하는 '하람'으로 판단한다는 파트와를 발표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삼림 벌채 금지 정책을 끌어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이탄지(泥炭地)를 보유하고 있다.

이탄지는 나뭇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퇴적된 습지로 일반 산림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온 상승으로 열대우림과 이탄지에 대규모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농경지 확대를 위해 불법 개간하는 경우도 많다.

인도네시아는 또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며 지금도 전력 생산의 3분의 2 이상을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부터 전력 부문에서 탄소배출 감축에 들어가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사랑과 감사의 70년
1954-2024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박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박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 과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사회	신 학 과	신학부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총 계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4. 2. 22(목) ~ 28(수) · 전형 일: 2024. 2. 28(수) 18시

정시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024. 2. 22(목) ~ 28(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